

# 잡아함45 각경

날짜: 12월 29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27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5수음이 있다.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? 색수음(色受陰)과 수(受受陰) · 상수음(想受陰) · 행수음(行受陰) · 식수음(識受陰)이니라. 만일 사문 바라문이 ‘나는 있다’고 본다면, 그들은 모두 이 5수음에서 나[我]를 보는 것이니라. 여러 사문 바라문은 ‘색이 곧 나다. 색은 나와 다르다. 나는 색 안에 있다. 색은 나 안에 있다’고 본다. 수 · 상 · 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, ‘식은 곧 나다. 식은 나와 다르다. 나는 식 가운데 있다. 식은 나 가운데 있다’고 본다.

어리석고 법문을 듣지못한 범부들은 무명(無明)으로 말미암아 ‘색이 곧 나다. 나와 다르다.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’라고 보고, ‘나[我]는 진실한 것이다’고 말하며 버리지 않는다.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근(根)은 더욱 자라고, 모든 근이 더욱 자란 뒤에는 모든 접촉[觸]을 더하며, 6촉입처(觸入處)에 부딪치기 때문에 어리석고 법문을 듣지못한 범부들은 괴롭거나 즐거운 감각을 일으키나니, 그것은 다 촉입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라.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? 이른바 안촉입처(眼觸入處)와 이촉입처(耳觸入處) · 비촉입처(鼻觸

入處) · 설촉입처(舌觸入處) · 신촉입처(身觸入處) · 의촉입처(意觸入處)니라.

이와 같이 비구들아, 의계(意界)와 법계(法界)와 무명계(無明界)가 있다.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무명의 접촉[無明觸]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감각 · 없다는 감각 ·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감각 · 내가 낫다는 감각 · 나는 그와 같다는 감각 · 나는 못하다는 감각 ·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감각을 일으키나니,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감각은 다 6촉입처를 말미암기 때문이니라.

그러나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이 6촉입처에서 무명을 버리고 밝은 지혜로써, 있다는 감각 · 없다는 감각 ·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감각 · 나는 낫다는 감각 · 나는 그와 같다는 감각 · 나는 못하다는 감각 ·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감각을 일으키지 않는다.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나면 먼저 일어났던 무명의 접촉[無明觸]은 소멸하고, 그 뒤에는 지혜로 향하여 깨달음이 생겨나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.